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 급식 위탁 시도를 저지한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성지현 지부장 인터뷰

장영우 선전위원

최근 경기도 교육청에서 도내 일부 학교에 대한 급식을 위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현장의 목소리 코너에서는 이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경기지부 지부장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11월 18일 수원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지부장 성지현입니다. 교육기관에는 공무원이 아닌 다양한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이들 무기계약 직군을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학교에는 많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급식실, 행정실, 교무실, 도서실, 과학실, 특수교실, 돌봄교실 등에서 일합니다. 경기도의 교육공무직은 3만 5천 명 정도이고, 전국으로는 20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 급식노동자들이 30%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들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학교에서 급식으로 밥하고 찌개만 줬다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7명이 일해야 하는 데 2명밖에 없으니 급식이 부실해지지요. 경기도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내도 일할 사람이 없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6~7년 전만 해도 급식실에 채용공고를 내면 지원자 중에서 불합격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3~4년 전부터 용인, 화성지역부터 시작해서 채용공고를 내도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상 입사하더라도 일이 힘드니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고요.

최근 몇 년 사이 급식노동자 중에서 폐암이 많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알려졌다습니다. 전국 급식노동자들이 2년 전 흉부 CT 검사를 전수조사 받았는데 우리 노조



▲ 11월 19일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오체투지 행진, 사진출처: 성지현지부장

에서도 6, 7명 정도 폐암이 발견됐고, 경기도 내 다른 노조를 포함하면 경기도 내 급식노동자 중에서 20명 정도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 결절로 인한 재검자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고요. 급식실에서 일하다 보면 폐암이 생긴다고 하는데 누가 일하러 오겠습니까? 게다가 노동강도도 세서 다른 공공기관은 1명이 50~60명분의 식사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학교는 1명이 120명분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앞치마를 두르면 미친 x처럼 일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무거운 걸 들고 나르면 팔, 다리, 어깨도 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쁜 일자리니 일하러 오질 않는 것이지요.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현재 공무원의 유급 병가와 질병 휴직은 각각 60일과 3년이며, 장기 재직휴가는 근무기간에 따라 5일과 10일 또는 20일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 경우에는 유급 병가와 질병 휴직은 각각 30일과 무급 1년이고, 장기 재직휴가는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암에 걸려 치료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어지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별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급식노동자(조리사·배식원 등), 특수교육지도사, 청소노동자는 임금이 없어요. 12개월 중 3개월은 강제 무급휴직을 당해야 합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설 연휴도 광복절도 무급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회사의 경영상 귀책 사유로 휴업 시 노동자들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방학은 법적으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하러 다녀야 생활할 수 있는 생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만 고수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것이고 최근 발생하는 결원 사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려면 성교육, 청렴, 위생, 안전 등 법정 의무 연수교육을 많이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유급 근무일을 늘려 그 시간에 연수교육을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성지현 지부장, 사진출처: 장영우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급식실 인원 부족 문제를 위탁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 위탁을 통해서라도 구하려고 하는 건데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가지 문제가 그것인데요. 그걸 해결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도 해결이 될까 말까 한데 위탁은 땀질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교육청은 당장 대안이 없다며 위탁이라도 해서 어디서라도 인력을 데려와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지난여름 총파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 정규직들과 임금과 복지에서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하루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을 3년째 벌이고 있지만, 전혀 진전이 없고, 겨울 복무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집중 교섭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됐죠. 이에 쟁의권을 얻어 '차별에 저항하라'라는 큰 모토로 총파업을 진행

했습니다.

지난시기 교섭 결렬이 된 상황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 규탄과 앞으로 교섭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다른 사안까지 타결을 보기 위한 취지로 7월 하루 파업을 한 것이죠. 이후 교육청과 집중 교섭을 했는데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12월 6일 전국의 학교 공무원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노조만이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같이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이전에는 경기도 교육감이 이른바 진보교육감이었지만 그때도 교섭이 제대로 되진 않았는데, 지금은 보수교육감이 재임 중이다 보니까 더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3~4년 전부터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있습니까?

예전보다는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는 거 같긴 한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지요. 급식실에서 수백 명이 먹을 분량의 재료를 튀기고 굽고 볶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

해물질과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가스 때문에 조리하다 보면 주위가 뿌연습니다. 조리 연기 흡입으로 인한 폐암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쟁점이 되다 보니 교육청에서 근무환경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하지만, 막상 요리할 때 점검을 하지 않고 퇴근하고 점검을 하는 식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환기시설 공사한 학교가 몇 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기시설 확충 등 중장기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노동자를 보호할 방법이 시급하게 요구되는데, 교육청에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인력을 충원하여 노동강도를 낮추고 흥부 CT라도 정기적으로 검진받게 해주면 좋겠는데 예산을 핑계로 이마저도 해주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조합은 언제, 어떻게 결성됐나요?

노동조합은 2010년쯤 준비했던 것 같아요. 2012년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초로 파업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교에 공무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유령처럼 존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낸 것이죠. 당시 호봉도, 수당도 없는 열악한 처우와 상시적 업무임에도 재계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를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이후 2014년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시·도교육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투쟁의 성과로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직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고용은 대체로 이전보다는

안정된 편입니다. 하지만 영어 회화 전문강사, 방과 후 코디와 같이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분들은 여전히 고용이 불안정하여 매년 고용안정 투쟁을 하는 직종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을 어렵다고 느끼고 계시는지요?

노동조합 결성 초기에는 조합원들의 지지와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도 많아지고 직종도 다양해지니 일일이 그 모든 요구를 노동조합에서 수용하기에 한계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2,500여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조합원들과 일일이 만나서 소통하기 쉽지 않지요. 최근에는 급식노동자 조합원들의 노동안전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직종에 있는 조합원들의 불만이나 원망의 목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경기도 학교의 다양한 직종조합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이 어렵고 앞으로도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터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학교 급식이 K-급식이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 급식노동자들은 폐암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12월 6일 파업을 통하여 임금에서부터 휴가까지 서럽도록 차별에 시달려온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힘들지만,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